

확상 사고 우려되는 장난감 꽃불류, 손 다치는 경우 많은 원터치 캔

생일·결혼식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폭죽은 화약으로 만들어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이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폭음탄·폭죽 등의 장난감 꽃불류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품목이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원터치 캔은 패널의 절단면이 날카로워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봉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글/오승건(소비자정보국)
 ※본문중의 사진은 사고 제품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한 것입니다.

장난감 꽃불류

생일 케이크를 사면 장난감 꽃불류의 하나인 폭죽을 한두 개씩 끼워 준다. 사람 가까이에서 폭죽을 터트리거나 사람을 향해 터트리면 위험하다. 폭죽을 터트리다가 불꽃이 눈에 들어가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폭죽에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사항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주의 사항이 인쇄된 경우가 많아 경고 문구로서의 효과는 떨어진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에 충분한 폭음탄·폭죽 등의 장난감 꽃불류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위험한 제품이다. 장난감 꽃불류 사고 가운데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과 제품 결함에 의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사람이 던진 폭죽, 불꽃놀이 구경하는 중에 터진 불뚝이나 불발탄에 의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장난감 꽃불류는 폭발음을 내는 것, 날아가는 것, 불꽃·불티·꽃불을 내는 것, 회전하는 것 등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다. 장난감 꽃불류에 의해 다친 신체 부위는 팔다리·얼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린이들이 장난감 꽃불류를 구입하는 곳은



주로 학교 앞 문구점이나 동네 문구점이다.

어린이들이 장난감 꽃불류를 좋아하는 이유는 불과 불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불꽃과 폭음은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꽃불류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많다.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

【안전한 사용법】

●장난감 꽃불류는 화약으로 만든 것이



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한다.

-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한다.
- 사용할 때에는 주의 사항을 잘 읽어보고 그대로 따른다.
- 불발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땅에 떨어진 꽃불류는 줍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으면 아무 것도 바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 응급 조치를 취한다. 화기를 뺀다고 된장·소주·바셀린 등을 바르고 병원을 찾는데 도리어 치료에 방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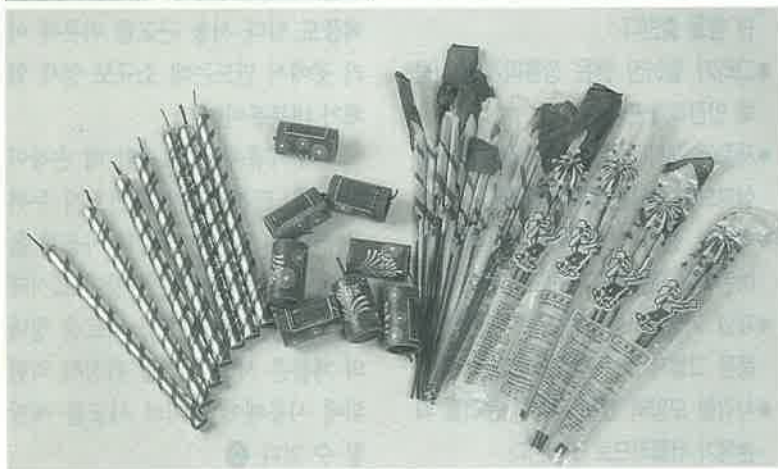
▶장난감 꽃불류 안전 실태②<소비자시대 96년 11월호>

▶장난감 꽃불류 안전 실태①<소비자시대 92년 12월호>

밀크티

대학교 구내 매점의 온장고에 보관돼 있던 밀크티를 구입한 장준호 씨는 개봉하는 순간 쾅 하는 소

장난감 꽃불류는 폭발음을 내는 것, 날아가는 것, 불꽃·불티·꽃불을 내는 것, 회전하는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장난감 꽃불류에 다친 신체 부위는 팔다리·얼굴이 대부분이다.



리와 함께 얼굴에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장씨는 눈과 이마에 화상을 입어 일주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올 1월에 발생한 이 사고는 대학이 방학중이라 구내 매점에 들여놓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온장고에 보관돼 내용물이 변질돼 일어났다. 내용물이 변질돼 용기 내에 가스가 차 있었는데 뚜껑을 열자 내용물이 튀어 나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된 것이다.

홍차 추출액을 사용한 제품은 3주 이상 온장고에 보관하면 변질된다. 밀크티를 상온에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1년이지만 썩ષ 60도의 온장고에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2주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온장고에 보관된 제품을 먹을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주의하도록 한다. 개봉할 때에도 되도록 얼굴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른다.

윈터치 캔

이동영 씨는 윈터치 캔에 든 황도 통조림을 따기 위해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힘을 가했으나 잘 따지지 않았다. 힘을 더 주려고 엄지손가락을 고리에 넣어 당기는 순간 머리가 덜된 고리의 날카로운 부분에 베여 손가락을 다쳤다.

간편한 윈터치 캔을 이용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윈터치 캔에 손을 다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리에 손을 베인 이동영 씨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다. 사고의 대부분은 윈터치 캔의 날카로운 패널이 캔을



열기 위해 잡고 있던 손에 스치면서 일어난다. 원터치 캔 사고의 주요 원인은 패널의 절단면이 날카롭고 개봉하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원터치 캔은 캔을 따는 기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만 딸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하지만 캔 뚜껑 역할을 하는 패널의 절단면이 날카로워 조금만 스쳐도 다친다.

일반적으로 캔의 높이가 낮은 제품, 패널의 재질이 스텔인 제품은 캔의 높이가 높은 제품이나 재질이 스텔인리스 스텔인 제품보다 개봉하는데 힘이 더 든다. 복숭아·참치·콩치·고기볶음·땅콩·깻잎·아몬드·분유 등 원터치 캔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원터치 캔을 따기 전에 떨어져 나간 고리에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다. 고리가 떨어진 캔을 무리하게 개봉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고리가 떨어진 캔은 반드시 강통따개를 사용해 안전하게 개봉하도록 한다.



원터치 캔은 뚜껑 역할을 하는 패널의 절단면이 날카로워 조금만 스쳐도 다친다. 캔의 높이가 낮은 제품, 패널이 스텔인 제품은 캔의 높이가 높은 제품이나 스텔인리스 스텔인 제품보다 따는데 힘이 더 든다.

【안전한 사용법】

- 처음에 힘을 가해 패널이 반 정도 열리면 힘을 줄인다.
- 고리가 떨어진 캔은 강통따개를 사용해 안전하게 따는다.
- 제품에 표시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살펴보고 표시된 대로 개봉한다.
- 원터치 캔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므로 어린이가 개봉하지 못하도록 한다.
- 패널 가장자리를 이중으로 처리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안전하다.
- 사각형 모양의 캔은 패널이 분리될 때 본체가 뒤틀리므로 조심한다.

●캔을 따기 전에 손가락을 끼우는 고리 부분의 마무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살펴본다.

●원터치 캔 안전성 실태<소비자시대 95년 9월호>

누릉지 제조기

이현자 씨는 가스를 사용해 요리하는 요술 팬으로 누릉지를 만들었다. 가스 레인지에 놓인 요술 팬을 내리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잡이가 불에 달궈져 있어 화상을 입었다.

요술 팬은 이씨의 시어머니가 동네 요리 강습회에 갔다가 사온 것으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선 요리가 가능하며, 팝콘도 튀길 수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을 열전도가 잘 되지 않는 다른 재질로 바꾸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크다.

이런 유형의 제품은 보통 몸체는 알루미늄이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손잡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지 않은 제품도 있다. 서울 근교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만드는데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 제품에는 '요리할 때 손잡이가 매우 뜨거워집니다. 반드시 두꺼운 천이나 오븐용 장갑을 사용해 옮기십시오' 등의 주의 사항이 표시돼 있다. 누릉지 제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사용 방법을 완전히 익힌 뒤에 사용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